

【논문】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

서도식

【주제분류】 사회철학, 현대유럽철학

【주요어】 사회적 노동, 비판, 인정, 하버마스, 호네프

【요약문】 오늘날 사회적 노동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특세에 따른 자본주의 노동 세계의 구조 변동으로 19세기 이래 누려온 비판적 사회 이론의 근본 개념의 지위를 상실했다. 노동에서 의사소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행한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처럼 노동으로부터 규범성을 제거한다면, 노동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노동 사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비판적 사회 이론의 과제는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 사회를 탈규범적인 체계통합적 질서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19세기 유토피아적 노동 개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적 노동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비판 이론의 흐름에서 호네프의 인정 이론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호네프에 의하면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상호주관적 인정 질서에서 찾은 것은, 역으로 자본주의 노동 사회의 병리 현상을 그러한 인정 질서의 훼손으로 진단,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과 인정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노동 사회에 대한 이론적 경고가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A00032).

I. 문제 제기

역사적으로 노동은 자본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 중 하나였다. 자본 없는 자본주의가 어불성설인 것처럼 노동 없는 자본주의 또한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인간의 노동력보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기계적 수단들이 출현한 이후로 낡은 것이 되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노동을 차츰 잉여적 생산수단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노동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에서 가능한 상태로 이행한 것처럼 보였다. 리프킨(J. Rifkin)이 표현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은 바로 이러한 시대 흐름의 정곡을 찌른 키워드라 할 수 있다.¹⁾

리프킨보다 앞서 하버마스(J. Habermas)도 오늘날 생활세계에서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상실되어 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감에 따라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의 그의 진단이다.²⁾ 물론 하버마스의 진단은 리프킨의 테제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거나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³⁾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이론의 핵심 범주가 더 이상 노동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프킨과 하버마스의 시대 진단은 공통점이 있다. 노동이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구성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진단과 비판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맑스주의 사회 이론의 전제가 되었던 이른바 ‘노동 사회(Arbeitsgesellschaft)’로부터 벗어

1) 제러미 리프킨, 이영호(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1.

2)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95, 485쪽.

3) 인용구는 도미니크 슈나페르, 김교신(역),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민음사, 2001, 15쪽에서 가져옴. 슈나페르(D. Schnapper)는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테제를 관념적 또는 유토피아적 판단으로 비판하고 있다.

나려는 연습, 즉 사회 이론에 있어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가 회자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 진단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노동의 비중이 점점 약화되는 현상에 맞춰 이론의 영역에서 노동 패러다임의 포기를 감수하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현상들이 더 이상 사회적 노동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냐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노동은 더 이상 사회 병리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비판적 사회이론은 더 이상 사회적 노동 개념을 시대 진단과 비판을 위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느냐는 물음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호네프(A. Honneth)는 오늘날 노동 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경향을 “노동 세계로부터의 지적 퇴각”으로 진단하고, 노동의 종말에 대한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활 세계에서 노동의 중요성 손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⁵⁾ 호네프의 이러한 주장을 실증하는 사실은 지난 30여년 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 사회의 구조 변동이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룩해낸 성과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즉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자본의 자기증식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상응하여 노동 사회의 경우, 노동 형태와 조직도 큰 변화를 보였는데, 비정규직 노동과 시간제 노동 등이 노동 시장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고용 형태 또한 외주 중심의 간접 고용이 대세가 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유기적 결합력도 현저히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⁶⁾ 따라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상시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노동이 여전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의 종말이 거론되는

4) 예를 들어 홀거 하이데, 강수돌 외 3인(역),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기』, 박종철출판사, 2000, 196쪽 이하.

5) A. Honneth, “Arbeit und Anerkennung. Versuch einer theoretischen Neubestimmung”, in ders.,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79쪽.

6)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이른바 ‘IMF 위기’ 이후 한국에도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적으로 휩쓸어 노동 시장 및 고용 관계, 나아가 노동운동 등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2002 참고 바람.

시대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노동과 관련한 사회 병리 상태의 진단과 비판이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오늘날 생활세계에서 사회적 노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대표적인 비판적 사회이론인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앞에서 제기한 문제, 즉 사회적 노동 개념과 비판적 사회이론의 시대 진단 및 비판과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노동이 여전히 생활세계의 병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럴 경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의 규범적 토대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호네프의 인정 이론(Anerkennungstheorie)은 우리의 논의에 매우 유익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노동 사회의 두 층위

노동에서 의사소통행위로 비판적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은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19세기 유토피아적 노동관을 기초로 한 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들 간의 의사소통행위가 사회의 구성적 계기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은 단독 행위자의 합목적적 활동 내지 도구적 행위로 규정되면서 사회 구성력을 상실한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상호작용 형태인 의사소통행위의 연관으로 정의된다.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 이론(zweistufige Gesellschaftstheorie)에 의하면 의사소통행위의 연관으로 성립되는 사회 질서가 우리들의 ‘삶의 세계(Lebenswelt)’이고, 합목적적 활동의 사회적 유형인 전략적 행위의 연관으로 규정되는 또 하나의 질서가 ‘체계(System)’이다. 2단계 사회 이론의 핵심 내용은 하나의 사회가 두 유형의 사회 질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언어적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적 질서가 기층(基層)인 반면, 조절 매체에 의해 규제되는 체계통합적 질서가 그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해 그로부터 파생된 2층위의 사회 질서라는 주장이다.⁷⁾

7)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문제는 하버마스가 사람들의 노동 행위로 구성되는 사회 질서를 2층위의 파생적 질서, 즉 전략적 행위의 연결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결망의 특징은 사람들 상호간의 전략적 행위의 결과들이 행위 규범과는 무관하게 조절 매체에 의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형성에 기여한 대표적인 체계통합적 질서로 꼽는 것이 경제와 행정인데, 그 중 경제 체계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화폐 매체를 통해 서로 조정된 결과 성립되는 것으로, 노동의 사회성(Sozialität)보다는 도구성(Instrumentalität) 내지 성공지향성(Erfolgsorientiertheit)만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구상에 의하면 근대 사회의 노동 세계,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노동 사회는 경제라는 체계통합적 질서로만 규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근대 사회의 경우 실제 사회적 분업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사회적 노동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처음부터 노동을 단독 행위자의 합목적적 활동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사회성을 분석적으로 추상하여 노동을 비사회적인 도구적 행위로 축소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분리된 사회성은 의사소통행위라는 또 하나의 분석적으로 독립된, 그렇지만 노동에 대해 사회 구성에 있어 우선성을 지닌 상호작용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물론 사회의 구조 형성력, 다시 말해 사회 질서의 구성적 계기가 되는 인간의 실천 행위로, 노동에서 상호작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하버마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은 비판적 사회 이론이 19세기 이래 노동 패러다임이 갖고 있던 형이상학 기반의 규범적 기초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K. Marx)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노동을 소외된 노동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자본주의 사회의 수공업적, 장인적 노동 모델을 소외되지 않은 유적 인간의 자기실현 활동으로 가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분명 헤겔 철학에서 절정을 이룬 독일관념론의 정신 활동 모델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⁸⁾ 탈형이상학 시대에 걸맞는 비판적 사회 이론을 기획

나남출판, 2006, 185쪽 이하.

8) J. Habermas,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Suhrkamp, 1976, 152

하려는 하버마스로서는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더 이상 형이상학 기반의 이상적인 노동 사회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그가 기대한 것은 실제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해온 의사소통 합리성의 규범적 잠재력이 전개되는 ‘의사소통 사회(Kommunikationsgesellschaft)’이다.

그러나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로부터 형이상학을 제거한 하버마스의 공적 이면에는 사회적 노동의 범주가 더 이상 사회 이론 속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맹점이 숨어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적 노동이 여전히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감퇴하지 않았다면,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의 공적은 과장될 필요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 이론에서는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가 더 이상 노동이라는 도구적 행위들의 연관, 즉 경제 체계에 있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는 사람들의 상호이해지향적 행위들이 조정된 결과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시한 성과지향적 행위들이 화폐 매체에 의해 기능적으로 조절된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질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처럼 노동 사회를 체계통합적 질서와 동일시할 경우 우리는 매우 축소된 노동 개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 자신도 노동과 상호작용의 구분, 생활세계와 체계의 구분을 분석적 수준의 구별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생활세계와 체계는 하나의 동일한 사회가 갖는 ‘두 측면(Aspekten)’이며,⁹⁾ 노동과 상호작용도 하나의 동일한 사회적 실천의 ‘두 측면’이라는 주장이다.¹⁰⁾ 특히 후자와 관련해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노동 개념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는 언급을 하고 있다. 생산 활동은 대개 사회적으로 조직되므로 노동이라는 도구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행위 연관에 편입된다는 주장이다.¹¹⁾ 이는 분석 수준이 아닌 실제의 경험 수준에서

쪽 이하;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95, 484쪽.

9) J. Habermas, “Entgegnungen”, A. Honneth/ H. Joas(Hg.), *Kommunikatives Handeln. Beiträge zu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88, 379쪽.

10)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1973, 382쪽, 주 27.

11) 로렌처(A. Lorenzer), 한(E. Hahn) 등이 노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구분을 “구체화의 오류(misplaced concreteness)”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하버마스는 이를 수용하여 그 구분

는 사회적 노동 속에 의사소통적 계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노동 사회 또한 사회통합적 질서인 생활세계와 체계통합적 질서가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적 분석에서 두 질서의 분석적 분리를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비판자들로부터 사회적 노동의 세계를 경제 체계로 환원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¹²⁾

만일 하버마스처럼 노동 사회를 두 개의 층위 중 오로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체계통합적 질서만으로 축소 개념화한다면 생활세계에서 노동과 관련된 규범 훼손 현상은 비판은 고사하고 설명조차 할 도리가 없다. 비판적 사회 이론의 틀 속에서 노동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병리와 연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에서 근대 사회의 대표적인 병리로 거론되는 것은 “생활세계의 식민화”인데, 이 테제는 생활세계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가 아니라 행위조정 메커니즘의 변형, 자세히 말하면 규범적 기반의 언어적 합의가 탈 규범적 매체에 의한 조절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즉 사회적 병리는 노동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 관계의 왜곡으로 설명되며, 이로부터 노동 사회의 문제들은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공론장이라는 공적인 생활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¹⁴⁾

사회적 노동을 두 층위의 질서 중 체계통합적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하버마스는 결국 노동으로부터 규범을 분리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오늘날 ‘신제도경제학(Neue Institutionenökonomik)’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노동 활동을 포함한 경제적 행위자들의 행동이 제도화된 규범들로부터 자유롭

이 분석적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곳.

12) 하버마스가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을 분석적 수준에서 구별하면서도 이러한 분석적 수준을 ‘사실적(faktisch)’ 수준으로 오용했다는 비판을 한 사람들은 G. Kneer, *Rationalisierung, Disziplinierung, Differenzierung. Zum Zusammenhang von Sozialtheorie bei Jürgen Habermas, Michel Foucault und Niklas Luhmann*, Westdeutscher Verlag, 1996, 138쪽 이하. H. Joas, “Die Unglückliche Ehe von Hermeneutik und Funktionalismus”, A. Honneth/ H. Joas(Hg.), 위의 책, 163쪽. A. Honneth, *Kritik der Macht. Reflexionsstufen einer kritischen Gesellschaft*, Suhrkamp, 1989, 324쪽.

13)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493쪽 이하.

14) 위의 책, 535쪽.

지 못하다는 점을 거론하는데, 이는 명백히 하버마스의 주장에 반하여 사회적 노동이 어떤 규범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¹⁵⁾ 물론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의사소통 합리성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또 다시 19세기 사회철학에서처럼 형이상학으로 회귀해서도 안 된다. 규범적인 사회적 노동은 한편으로 단독자의 행위 모델인 장인적, 예술적 노동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편입되어서도 곤란하다. 노동이 여전히 사회적 분업 체계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이고, 또 사회적 노동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생활세계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모색하는 과제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Ⅲ. 사회적 노동과 인정

1. 인정과 도덕

비판적 사회 이론의 역사에서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두 가지 이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사회적 노동을 사회 질서의 구성적 계기로 수용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의 경험적 실태가 갖는 병리적 현상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우, 자아실현의 목적을 가진 규범적 노동이 사회 질서의 구성적 계기로 가정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회적 노동은 그러한 규범적 노동이 훼손된, 말하자면 “소외된 노동(entfremdete Arbeit)”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물론 여기서 규범적 노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이 자신의 텔로스를 실현해나가는 형이상학에 기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노동으로부터 형이상학적 외피를 벗기는 일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의 장점이 바로 사회 질서의 구성

15) H.-C. Schmidt am Busch, *»Anerkennung« als Prinzip der kritischen Theorie*, De Gruyter, 2011, 34쪽 이하.

적 계기를 탈형이상학 기반의 언어적 의사소통행위에서 찾은 점이고, 반대로 단점이 노동을 그러한 구성적 계기로 보지 않은 점이라면, 우리는 사회 질서의 구성적 계기로서 규범적인 사회적 노동을 마르크스와 하버마스의 종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가 그랬듯이 사회적 생활세계에서 확보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노동을 둘러싼 규범적 질서의 훼손 현상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최근 비판적 사회 이론 진영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 헤겔(G. W. F. Hegel)의 인정투쟁 개념을 경험적으로 가공하여 자신의 사회 이론의 근본 개념으로 발전시킨 호네트가 이러한 과제 수행을 선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호네트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개념에 필적하는 자신의 ‘인정(Anerkennung)’ 개념을 내세워 한 사회의 규범적 생활세계를 인정 질서로 규정하는 사회이론적 관점을 펼쳐보인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회 이론의 이념을 “사회적 변동 과정을 상호인정 관계에 구조화되어 있는 규범적 요구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¹⁶⁾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핵심 영역은 인정 관계의 형식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질서인 것이다.

노동이 사회적 분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노동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인정 관계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훼손되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노동과 인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호네트가 말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인정 관계가 왜 규범적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이 사회 질서의 유일한 구성적 계기임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처럼 그것이 지닌 사회성의 계기, 즉 상호주관적 계기에서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규범적인 사회적 노동을 더 이상 노동 생산물을 통한 자아실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의 자아실현이라는 틀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16)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2011, 28쪽.

뜻이다.

호네프의 인정 개념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개념과 더불어 사회 이론의 상호작용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또한 그 두 개념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범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범적 토대가 하버마스에게서는 의사소통행위에 내재된 언어적 합리성인 반면, 호네프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온전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즉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이해의 합리적 조건이 무엇이나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이 어떤 것이냐가 호네프에게는 생활세계의 규범성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회가 구성원들 개개인의 온전한 정체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정의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 생활세계는 규범성이 훼손된 병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¹⁷⁾

이런 경우 호네프의 인정 이론의 도덕철학적 바탕에는 칸트(I. Kant)의 의무론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목적론이 상보적 관계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은 도덕 원칙의 보편적 적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도덕 원칙은 만인에게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적 이행만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특수한 삶의 목표, 즉 개인 나름의 “좋은 삶(gutes Leben)”의 영위는 무시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성공적인 삶의 영위를 무시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칸트적 의미의 도덕적 의무를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좋은 삶의 영위라는 목표와 결부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형이상학에 기반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좋은 삶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 통일적이지 못한 탈형이상학 시대에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호네프에 따르면 칸트의 도덕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철학의 상보성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특수한 ‘성공적인 삶(gelingendes Leben)’을 영위하려면 이를 위한 ‘형식적(formal)’ 조건을 의

17)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3인(역), 『정의의 타자. 실천 철학 논문집』, 나남, 2009, 127쪽.

무로서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조건이 바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⁸⁾

호네트가 청년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과 이에 대한 미드(G. E. Mead)의 “유물론적 전환”을 통해 내세운 인정관계의 유형은 사랑(Liebe), 존경(Respekt), 사회적 존중(soziale Wertschätzung) 등 3가지이다.¹⁹⁾ 이들은 각각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서로 구별되는 제도들을 통해 사회 질서로 구현되었다. 사랑이라는 인정 관계가 부르주아 핵가족 제도라는 모습으로, 권리 주체로서의 존경이라는 인정 관계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외양으로 나타났다면, 사람들 각자가 서로를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다시 말해 서로 연대할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관계는 근대적 노동 세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노동이 사회적 존중이라는 인정 유형과 결부될 경우,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일반적으로 그가 형식적으로 조직된 노동의 형태로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호네트의 조심스러운 주장이다.²⁰⁾

이렇게 본다면 규범적인 사회적 노동은 결국 근대의 분업화된 노동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노동이며, 이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성립된다. 호네

18) 위의 책, 217쪽 이하.

19)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역), 위의 책, 183쪽 이하.

20) 호네트의 인정 이론이 공표된 주저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1992년)에서는 아직 근대적 노동세계가 사회적 존중의 제도적 질서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헤겔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존중 질서를 ‘인륜성’ 개념과 연결시켜 단지 “형식적 인륜성”의 제도적 구현에만 관심을 쏟았다. 호네트가 노동과 인정의 관계에 대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시의 사회적 동학」(1993년)이라는 논문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도 이 문제는 짧막하게 논의되었다. 본문에서 필자가 “조심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3인(역), 위의 책, 130쪽 이하. 본문의 인용문은 같은 책, 128-129쪽. 노동과 인정의 관계에만 천착한 호네트의 독립적인 연구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쓴 「노동과 인정. 새로운 이론적 규정을 위한 시도」(2008년)이다. 여기서 호네트는 분업화된 근대적 노동조직과 시장 중심의 근대적 노동세계 안에서의 인정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A. Honneth, “Arbeit und Anerkennung. Versuch einer theoretischen Neubestimmung”, in ders.,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78-101쪽.

트의 인정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기여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연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각자 자존감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관계하며, 이것이 자신의 성공적인 삶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찾는 우리의 논의에 호네프의 인정 이론을 끌어들인다면, 그러한 규범적 토대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은 상호주관적 인정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노동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적인 삶, 좋은 삶의 영위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 각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 다시 말해 그들 상호간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인정 질서 속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노동과 인정 질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첫째, 사회적 노동세계는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체계통합적 질서로 환원되기보다 오히려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적 질서가 바탕이 된다는 점, 둘째, 후자의 질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관계가 아니라 호네프적 의미에서 상호 인정 관계라는 규범적 질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은 한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노동은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생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전자가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 노동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의 규범적 측면을 드러낸 것이다. 인정 이론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근대의 노동 사회는 단지 경제적 효율성의 체계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상호 인정의 질서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 절에서 이야기한 연대성의 형식으로서의 사회적 존중의 세계로서, 하버마스가 말한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규범적 토대로 삼는 사회통합적 질서에 필

적하는 것이다.

호네트가 근대적 노동 사회의 사회통합적 질서를 밝히기 위해 전거로 삼는 것은 헤겔의 『법철학』이다. 호네트에 의하면, 헤겔은 노동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경제 행위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도덕적 정당성 근거를 찾고자 한다. 개인의 노동과 욕구 충족 수단의 교환 체계로서의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인륜성(Sittlichkeit)에 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시장이 특정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네트에 따르면 헤겔에게서 그러한 규범적 기준은 개인이 “노동과 욕구 충족의 상호 의존과 대립 속에서” 자신의 “주관적 이기심(subjektive Selbstsucht)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²¹⁾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은 자신의 노동과 욕구 충족의 목적을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 이익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 각자는 자신의 노동 성과를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진다²²⁾는 것이다. 사회적 분업 체계의 참여 목적이 사회의 공익 창출이라는 점에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작동 근거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호네트는 체계통합적 질서인 근대적 시장의 바탕에 사회통합적 질서가 깔려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노동이 사회 전체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기여에 대한 상호 기대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연대성의 규범적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지만 사회의 공익에 대한 개인적 기여의 구체적 내용이 노동 성과를 통한 “일반 재산(das allgemeine Vermögen)”의 증식에 있는 만큼,²³⁾ 방금 지적한 규범적 조건 이외에 또 다른 실질적 조건 하나가 추가되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의 두 측면 중 우리가 앞에서 ‘기능적 측면’이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생존 수단 확보 말이다. 쉽게 말하면 개인은 노동을 통해 공적 이익 증대에 기여하

21)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in 20 Bänden, Bd., 7, Suhrkamp, 1970, 353쪽.

22) A. Honneth,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89쪽.

23) G. W. F. Hegel, 위와 같은 곳.

로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존’이라고 표현한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과 가족을 문화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부양하는 것을 헤겔은 시민적 “권리(Recht)”로 규정한다.²⁴⁾ 그러나 호네트에 의하면 헤겔에게서 개인의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생명 부지의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권리 존중이라는, 헤겔 자신이 만든 ‘인정’이란 용어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²⁵⁾

호네트의 헤겔 해석을 따를 경우,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의 두 측면, 즉 생존 수단의 확보라는 시장경제의 기능적 요소와 자기실현이라는 생활세계의 규범적 요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후자가 전자에 선행하는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 생존의 문제가 인정이라는 규범적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그 개인의 노동의 성과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갖게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과 인정을 결합한 헤겔의 시도를 바탕으로 호네트는 자본주의 노동 시장(Arbeitsmarkt)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한다. 자본주의 노동 시장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까다로운 도덕적 전제” 아래에서만, 즉 노동 시장 속에 편입되는 계층이 “생계를 보장받는 임금”과 “인정을 받을만한 노동”을 하게 되리라는 “정당한 기대(legitime Erwartung)”를 갖는 한에서만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⁶⁾ 노동을 도구적 행위로 축소시켜 의사소통행위의 축소된 형태로 간주한 하버마스와 유사하게, 호네트 역시 개인의 사회적 노동 세계로의 편입을 인정이라는 규범적 사회 질서 속으로의 편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헤겔에 의해 시도된 근대적 노동 세계와 인정 질서의 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 도덕적 기반을 부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헤겔의 시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버마스처럼 사회를 생활세계와 체계로 분리시켜 경제를 오로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후자의 영역으로 환원시키려는

24) 위의 책, 385쪽.

25) A. Honneth, 위의 책, 90쪽.

26) 위의 책, 94쪽.

태도와 대립되는 것이다. 호네트는 오늘날 경제와 도덕을 분리시키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폴라니(K. Polanyi)를 꼽는다. 호네트의 비판에 의하면, 폴라니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든 전통적 관습과 도덕적 규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히 자립화되는” 쪽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도덕적 관계의 전환”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모든 인륜성으로부터의 분리”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 또한 그 어떤 도덕적 제한도 필요 없는 “자기규제적 메커니즘”으로 만든다는 것이다.²⁷⁾ 폴라니의 시도에서 사회적 노동세계는 개인의 자기 이익 창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만 조직되고 수요와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장 체계로만 축소될 뿐이다.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규범적 요소를 제거하는 이러한 폴라니의 시도는 하버마스의 시도처럼 현존하는 사회적 노동세계의 규범적 훼손 현상을 비판하기엔 난망하다는 생각이다.

헤겔과 마찬가지로 뒤르켄(E. Durkheim)도 경제와 도덕의 상관성을 인정한 자로 평가된다. 뒤르켄의 관심은 근대 사회의 노동 분업 체계 속에서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성의 원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뒤르켄의 분석에 의하면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은 생활세계로부터 노동 분업 체계의 자립화로 인해 연대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연대성 형식이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뒤르켄은 이를 “기계적 연대성(mechanische Solidarität)”에서 “유기적 연대성(organische Solidarität)”으로의 변화로 규정한다. 뒤르켄이 말하는 유기적 연대성이란 사회의 노동 분업 체계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통합적 질서를 말한다.²⁸⁾ 호네트의 해석에 의하면 뒤르켄의 유기적 연대성 개념은 서로 이질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적 개인들 간의 사회적 결속감의 원천을 종교나 형이상학적 가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노동 조직, 자본주의 경제 현실 자체에서 찾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로써 뒤르켄이 의도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된 노동조직이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역사적 산물이 아니

27) 위의 책, 92쪽.

28) E. Durkheim, *Über soziale Arbeitsteilung. Studie über die Organisation höherer Gesellschaften*, Suhrkamp, 1977, 162쪽 이하.

라 그 자체로 규범적 정당화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²⁹⁾

호네트의 뒤르켕 해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노동 분업과 유기적 연대성의 상관 관계로부터 인정 질서의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이다. 호네트에 의하면 뒤르켕이 분업화된 노동 조직이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 형식으로부터 인륜적 통합과 연대의 원천을 끌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분업의 공정함(Fairneß)과 투명성(Transparenz)”인데, 전자는 개인들의 자발적 노동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 조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후자는 노동을 통한 개인들의 사회적 기여가 공동체에 대해 갖는 가치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³⁰⁾ 이는 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가 인권 차원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노동의 성과를 통해 구성원 각자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성원들 간의 이러한 상호 인정이 규범적 조건으로 갖추어질 때에만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과 시장의 존립이 정당화된다는 주장이다.

호네트가 헤겔과 뒤르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규범적 질서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과 인정의 관계를 확인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간략히 말하면 자본주의 노동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인정이라는 사회통합적 질서에 규범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부터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 그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계층들을 다시 노동 사회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없는 도덕적 근거가 도출된다.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과 시장 체계를 체계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조망할 경우, 노동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증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연대성의 유지라는 규범적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과 인정의 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

29) A. Honneth, 위의 책, 96-99쪽.

30) 위의 책, 98쪽.

제 체계의 존속 자체가 이미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인 상호주관적 인정 질서에 의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IV. 사회적 노동과 사회 비판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찾는 작업은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의의를 지닌 것이 아니다. ‘규범적(당위적)’ 노동이 ‘경험적(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규범 훼손이 실천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영위에 방해가 되리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비판적 사회 이론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사회 병리(soziale Pathologie)’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비판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판적 사회 이론이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는 사회 비판의 규범적 정당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이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특히 노동이 사회의 구성적 계기로 작용하는 사회와 (이보다 약하지만) 노동이 생활세계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규범적 노동의 상(像)이 확립되어야 노동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다. 이 글에서 간간이 언급한 마르크스, 특히 청년기 마르크스의 경우 이 문제를 자신의 자본주의 비판의 화두로 설정한 대표적인 이론가였다.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을 “소외된 노동”으로 진단, 비판한 것으로 유명인데, 이 때 그가 설정한 비판의 규범적 토대, 즉 규범적 노동은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외부에서 실현하는 활동, 따라서 노동의 산물을 자기화(Aneignung)하는 활동이다.³¹⁾

31) 칼 맑스(마르크스: 필자)·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7, 71쪽 이하. 그러나 마르크스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하기 시작한 이후, 그가 설정하는 규범적 노동 모델은 이른바 ‘과학적’ 비판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된 채 드러나지 않는다.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한 분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규범적 노동 모델을 경험 세계에서 실현하는 일은 이후 마르크스주의 노동해방 운동의 이념적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소외되지 않은 자기실현 활동으로서의 노동 개념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노동 사회의 바깥에서, 정확히 말하면 분업화되지 않은 전근대적 사회로부터, 그것도 정신의 외화 모델이라는 헤겔 형이상학의 외피를 입혀 끌어온 수공업적 혹은 예술적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호네프에 의하면 이러한 규범적 노동 모델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그것의 성과 또한 사회적 교환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³²⁾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상은 실제 사회 세계 내부에서 찾아져야 현실적인 비판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본다면 마르크스의 규범적 노동 모델은 유토피아적이다. 호네프는 이처럼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자본주의 노동 관계 외부에서 가져와 자본주의 노동관계를 비판하는 것을 “외재적 비판(externe Kritik)”이라 부른다.³³⁾

19세기 유토피아적 노동관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노동 사회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것이 외재적 비판이라면, 이와 반대로 호네프가 옹호하는 “내재적 비판(immanente Kritik)”은 비판의 규범적 토대, 즉 규범적인 노동 모델을 비판 대상인 자본주의 노동 조직 안에서 찾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조직이 노동 성과의 상호 교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성과 교환 자체에 이성의 요구로서 내재하는 도덕적 규범”³⁴⁾이 비판의 토대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말하면, 내재적 비판은 “비판되는 상황 자체

석을 ‘상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때 상품은 사실상 ‘소외된 노동’의 산물로서 과학적 분석에서는 그것이 지닌 교환가치와 그 대응물인 추상 노동이 분석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과학을 “비판적 서술(kritische Darstellung)”로 변증법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시도하면서도 암암리에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구체 노동이다. K. 마르크스, 김수행(역), 『자본론 I(상)』, 비봉출판사, 1989, 51쪽 이하. 이 구체 노동은 규범적이라는 점에서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에 나타난 자기실현 활동, 본질 외화 활동으로서의 노동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2) A. Honneth, 위의 책, 83쪽.

33) 위와 같은 곳.

34) 위의 책, 85쪽.

안에서 정당화된, 이성적 요구로서 내재하는 척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³⁵⁾

비판적 사회 이론이 이러한 의미의 내재적 비판 개념을 수용한 것은 물론 호네트가 처음이 아니다. 하버마스가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로 도입한 의사소통합리성 역시 ‘이성적 요구’로서 그것의 잠재력이 근대 사회의 합리화 과정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표출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하버마스에게서 이러한 내재적 비판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관계에 국한된 것이지 노동 관계로 확장된 것은 아니었다. 호네트는 오늘날 사회적 노동을 사회구성의 ‘유일한’ 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와 궤를 같이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노동 관계를 상호 인정이라는 규범적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노동 상황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생활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영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와 차이를 보인다.

내재적 비판의 원리에 따라 비판의 규범적 토대가 경험 속에서 정당화되고 이제 그것의 훼손 현상까지 경험적으로 확증될 때, 비로소 사회 비판은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닌다. 호네트의 경우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식민화’ 현상에 버금가는 사회 병리는 인정 관계의 훼손이다. 인정 질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근대화의 과정에서 3가지 유형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헤겔 연구를 통해 얻은 호네트의 성과이다.³⁶⁾ 규범적인 인정 질서의 제도화가 경험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역으로 실제 훼손되고 있는 인정 질

35) 위의 책, 87쪽. 일반적인 의미의 ‘외재적 비판’과 ‘내재적 비판’에 대한 슈탈(T. Stahl)의 구분도 호네트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슈탈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비판이 규범적인 확신이나 관계가 아니라 보편주의적 경향을 띤 맥락초월적인 척도에 의존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비판은 하나의 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규범적 척도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 T. Stahl, *Immanente Kritik. Elemente einer Theorie sozialer Praktiken*, Campus, 2013, 26쪽 이하.

36)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역), 위의 책, 42-133쪽. 근대화 과정에서 인정 관계가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호네트의 주장은 헤겔의 예나 시기 ‘실재철학(Realphilosophie)’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성과이다. 이는 근대화가 의사소통 관계의 제도화로 특징지어진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이 베버의 종교사회학 연구에 힘입은 사실과 유사하다.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역), 『의사소통행위이론 1.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출판, 2006, 239-404쪽.

서가 무엇인지 또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호네프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학을 “인정의 병리학(Pathologie der Anerkennung)”으로 규정한다.³⁷⁾ 이 때 인정의 병리는 “무시(Mißachtung)”라고 불리우는 사회 현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인정 형식의 제도화와 관련시킬 경우 가족의 해체와 법적 권리의 박탈 및 사회적 연대성의 붕괴와 관련된 경험적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 현상은 각각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우정, 권리에 대한 존경, 사회적 존중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간단히 말하면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고유한 삶의 가치가 무시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정의 병리학은 오늘날 실업은 물론 각종 노동 시장에서 외주,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의 훼손으로 진단,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헤겔과 뒤르켕에 대한 호네프의 해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가 사람들 사이의 인정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노동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권리 인정과 더불어 노동 성과의 사회적 기여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 존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거꾸로 표현하면, 한 사회의 사회적 노동 조직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의 성공적인 삶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비정상적 방식으로 고용되는 경우는 모두 인정 관계의 훼손 현상으로 설명, 비판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생활세계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성공적인 삶의 영위에 있어 그의 노동이 사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 개인의 사회적 노동 세계로의 편입은 경제 체계의 효율적 작동이라는 기능적 차원에서만 설명될 수 없다. 헤겔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노동 조직에 대한 개인의 참여는 공동체의 인륜성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날 노동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일부 사상, 이론가들의 진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 수행 여부가 실제 생활세계 내

37)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3인(역), 위의 책, 126쪽 이하.

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면, 비판적 사회 이론의 일차적 과제는 선명해진다. 하나의 사회 이론이 사회 병리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정 관계의 왜곡을 낳은 사회구조적 원인”³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V. 맺음말

한 개인이 실제 사회적 노동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나, 설령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가 직면한 고용의 질과 여건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의 정체성 형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 관계 및 성공적인 삶의 영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오늘날 사회적 노동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체계 기능에 의해 침탈당하는 생활세계의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본문에서 주장했듯이, 생활세계의 규범성 훼손 문제는 반드시 하버마스가 말한 생활세계 식민화로 축소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노동 사회의 병리학은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처럼 체계 논리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인정 관계, 즉 개인적 정체성에 바탕한 연대적 관계가 훼손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문제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비판적 사회 이론에서 사회적 노동의 실태에 대한 설명과 비판, 나아가 노동 해방에 대한 전망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실천적으로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노동 영역을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존속 및 복잡성 증대를 위한 기능적 요소로 끊임없이 체계 내로 흡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노동이 자신의 규범적 토대로부터 분리, 자립화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38) 악셀 호네프트, 문성훈 외 3인(역), 위의 책, 130쪽.

데,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 이론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이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의 공적까지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노동에서 의사소통으로의 사회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은 오늘날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재확립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오늘날 비판적 사회 이론은 더 이상 마르크스와 같은 19세기 유토피아적 노동관을 규범적 토대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노동해방 이념이 설득력을 갖기엔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복잡성이 너무 증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버마스 사회 이론의 공과(功過)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새로운 상호작용 질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노동 개념에서 노동의 도구적 행위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호작용 측면을 새롭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유토피아적 노동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다시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호네프의 인정 이론이 중요한 실마리로 채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정 질서가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실천적 이유와 이론적 이유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다. 먼저 실천적인 이유로는 신자유주의 득세 이후 사회 운동 진영 내에서 노동 운동의 위상이 달라졌으며, 운동의 목표와 양상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무엇보다 과거 본질주의적 사회 관념의 퇴조와 더불어 노동 운동이 더 이상 사회 운동의 본질이 아니라 환경, 여성, 소수자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 형태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며, 과거처럼 ‘소외로부터 해방’이니 ‘계급 해방’이니 하는 거시적인 구호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노동 시간 단축, 작업장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변화의 주된 내용이다. 이는 사회적 노동 문제가 더 이상 사회 체계의 변혁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세계 안에서 개인적 삶의 성공 여부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노동이 개인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여 그 성과로써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사회적 노동의 규범적 토대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인정 관계에서 찾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의 사회 이론이 병리적 사회 현상을 비판할 의도가 있다면, 그 반대인 즉 바람직한 사회 현상에 대한 규범적 척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척도는 이성적인 것이 되 ‘탈마술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경험 세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규범적인 것의 발전 과정도 훼손 과정도 모두 경험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버마스가 말한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적 질서가 실제 사회합리화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고 또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어 왔듯이, 호네트의 경우에도 인정 관계에 기반한 사회통합적 질서는 근대의 개인화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경제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경제 체계의 존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체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인정 질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업, 비정규직, 시간제, 외주 등 신자유주의 시대에 횡행하고 있는 각종 비규범적 고용 형태들이 이러한 인정 질서의 부정 내지 파괴로 진단되고 비판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 고 일: 2014. 04. 02.

심사완료일: 2014. 04. 28.

계재확정일: 2014. 04. 29.

서도식
서울시립대학교

참고문헌

- E. Durkheim, *Über soziale Arbeitsteilung. Studie über die Organisation höherer Gesellschaften*, Suhrkamp, 1977.
- J.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1973.
- J. Habermas,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Suhrkamp, 1976.
- J. Habermas, “Entgegnungen”, A. Honneth/ H. Joas(Hg.), *Kommunikatives Handeln. Beiträge zu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88.
-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1995.
-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in 20 Bänden, Bd., 7, Suhrkamp, 1970.
- A. Honneth, *Das Ich im Wir. Studien zur Anerkennungstheorie*, Suhrkamp, 2010.
- A. Honneth, *Kritik der Macht. Reflexionsstufen einer kritischen Gesellschaft*, Suhrkamp, 1989.
- G. Kneer, *Rationalisierung, Disziplinierung, Differenzierung. Zum Zusammenhang von Sozialtheorie bei Jürgen Habermas, Michel Foucault und Niklas Luhmann*, Westdeutscher Verlag, 1996.
- H.-C. Schmidt am Busch, *»Anerkennung« als Prinzip der kritischen Theorie*, De Gruyter, 2011.
- T. Stahl, *Immanente Kritik. Elemente einer Theorie sozialer Praktiken*, Campus, 2013.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2002.

- 제러미 리프킨, 이영호(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1.
- K. 마르크스, 김수행(역), 『자본론 I(상)』, 비봉출판사, 1989.
- 칼 맑스(마르크스: 필자)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 출판사, 1997.
- 도미니크 슈나페르, 김교신(역),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민음사, 2001.
-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역), 『의사소통행위이론 1.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나남출판, 2006.
-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나남출판, 2006.
- 홀거 하이데, 강수돌 외 3인(역),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기』, 박종철 출판사, 2000.
-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3인(역), 『정의의 타자. 실천 철학 논문집』, 나남출판, 2009.
- 악셀 호네트, 문성훈 · 이현재(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2011.

ABSTRACT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Suh, Do-Sik

Today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apitalist labor society makes the concept of social labor lose its status as a basic one for critical theories of society it has enjoyed since the 19th century. Habermas's social theor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labor to communication, represents such a tendency. But removing normative characteristics from labor, as Habermas does, leads to the loss of theoretical grounds for diagnosing and criticizing pathologies in the labor society. Therefore, it'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the critical theory of society that it establishes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in that we have difficulty in denying that the problems occurring in today's labor society are still one of the dominant factors affecting our quality of lif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get a new normative concept of labor, with the help of which we don't need to reduce the labor society to the norm-free order of system integration, as well as we can escape from the 19th century's utopic concept of labor. Recently,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is rising up as one of the most persuasive solutions on this task. According to him, to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labor in the order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means, in other words, to be able to diagnose and criticize pathologies in the capitalist labor society as injuries of that order. The task of elucidating relations between labor and recognition will be a theoretical warning against the capitalist labor

society which lays so much stress on economic efficiency.

Keywords: social labor, critique, recognition, habermas, honneth

